



*A Word of Welcome to Fellow Asian Americans*

친애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러분들께 전하는 환영의 인사말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adds a unique and complex dimension to facilitating gospel-centered youth ministry, requiring that we think with theological depth. Please **join us** for our upcoming Rooted Webinar: “Formulating a Theology of Asian American Youth Ministry” on Thursday, February 15 at 1:00 p.m. CST. This live event will feature four youth ministry practitioners—Steve Eatmon, Mimi Lam, Dorothy Lau, and Huey Lee—along with host Clark Fobes. We will consider questions such as immigration, foreignness, histories, biculturalism, liminality, and more, with time to answer your questions. We hope you will **sign up** to join us!*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험은 복음 중심의 청소년 사역에 있어 독특하고 복잡한 차원을 더하여 깊이 있는 신학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미국중부표준시)에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 사역의 신학 정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Rooted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십시오. 본 세미나는 Steve Eatmon, Mimi Lam, Dorothy Lau와 Huey Lee 등 4명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참여하며 Clark Fobes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민, 이질성, 역사, 이중문화주의, 전이 등에 대한 주제뿐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 또한 다루질 것입니다. 많은 분이 본 세미나에 함께 하도록 등록하길 바랍니다.

In 2022, **the film “Turning Red”** caused a storm in a little corner of the North American evangelical world. Christians were on opposite sides of the love-hate spectrum over the Disney and Pixar movie. Nearly all the major Christian news and culture outlets decried the film as “typical Hollywood individualistic expressionism,” and heavily cautioned parents against allowing their children to see the movie. Yet, for those of us who, like the film’s Chinese-Canadian protagonist, experienced **growing up in a different culture** than that of our parents, “Turning Red” carried a different, landmark meaning. For Asian North American Christians, the film presented important themes to explore. But our viewpoints were unrepresented in the online domain of Christian thought. No one thought to ask us for our take. No one, that is, except Rooted Ministry.

2022년에 개봉된 영화, “메이의 새빨간 비밀(Turning Red)”는 북미 복음주의 세계에 작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디즈니와 픽사 영화가 갖고 있는 애증의 스펙트럼의 정반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크리스천 뉴스와 문화 매체에서 이 영화에 대해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개인주의적 표현주의”라고 비난했고, 자녀들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계 캐나다인 주인공처럼 부모 세대와 **다른 문화에서 자란 경험**을 한 우리에게만은 다르고 획기적인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시아계 북미 크리스천에게 이 영화는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크리스천 사상의 온라인 영역에서 대표되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도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니다. **Rooted Ministry**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말입니니다.

### *Prioritizing Asian American Voices*

아시아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우선시하기

Rooted reached out and encouraged me, a Chinese-Canadian, to write on “Turning Red.” And that’s how I came to be a part of this community of youth ministers and parents. The editors (now friends!) coached, supported and encouraged me, expressing their desire to hear my voice as an Asian North American parent serving young people in the local church. As Asian North Americans, **our cross-cultural upbringing** colors the ways in which we see the gospel, and I sensed that Rooted *valued* that.

Rooted는 중국계-캐나다인인 저에게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대해서 쓰도록 격려했고 이를 통해 청소년 사역자들과 부모님이 함께한 이 커뮤니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된 편집자들은 지역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섬기는 아시아계 미국인 부모로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지지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문화적 배경은 저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치며, Rooted는 이러한 **이중문화적 양육 배경**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e experiences of young Asian North Americans involve many layers of complexity that we must acknowledge as we disciple them in our local churches and our homes. Many families in our churches continually navigate **a cultural divide between generations**, and our church leaders bear the unique challenges of shepherding multiple congregations in different languages.

젊은 아시아계 북미인들의 경험은 지역교회와 가정에서에서 젊은 세대를 훈련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여러 복잡성을 뜻합니다. 저희 교회의 많은 가정들은 **다른 세대간의 문화격차**를 계속해서 탐색해가고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회중을 인도해가는 독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 *Offering Spaces for Connection*

관계를 위한 장소를 제공

So I’m grateful that at Rooted, there is space for Asian North American church leaders to connect, gather, and **discuss these issues**. Unpacking the intricacies of ministry to Asian North American teenagers and parents in multilingual churches with fellow saints has been a relief and a joy for me. Not because answers are easily attained, but

because I have found encouragement that I am not alone in having such unique challenges—challenges that, like viewpoints on “Turning Red,” are generally not addressed in the broad domain of resources for Christian ministry. The friendships that I’ve gained through connecting spaces, like **the online Asian American Rooted Regional Group**, have been an incredible blessing to me as a youth leader and as a parent.

따라서 Rooted에서 아시아계 북미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위해 연결되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역의 복잡한 문제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다중 언어를 쓰는 교회의 아시아계 북미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안도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보는 관점들이 크리스천 사역을 위한 주요 매체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지 않은 문제를 생각할 때, 문제의 해답을 빠르게 찾아서가 아니라 이 독특한 도전들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상의 아시아계 미국인 Rooted 지역모임**과 같은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갖게된 우정은 청소년 지도자이며 부모인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Here are a few ways Rooted is seeking to advance gospel-centered youth ministry for Asian North Americans:

- Rooted has committed to having gospel-centered, on-the-ground, in-the-know Asian American church leaders suggest and direct initiatives for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the **Asian American Steering Committee**.
- Through the monthly Rooted Asian American online regional group and in-person Asian American Pre-conference at the Rooted Conference, a growing network of Asian North American church leaders are able to strengthen connections as well as to encourage and learn from one another in fellowship.
- Asian North American speakers and writers **produce Rooted content** and **speak at conferences**. These leaders share their own experiences, demonstrating ways to contextualize the gospel that speaks specifically to Asian North American youth and adults.
- Rooted partners with Asian American organizations like **Sola Network** and AALC to continue to fill the resource void for Asian North American Christians and church leaders.

Rooted가 아시아계 북미 크리스천들을 위한 복음 중심 청소년 사역을 진전하기 위해 모색하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Rooted는 **아시아계 미국인 운영 위원회**를 통해 복음 중심의, 현장에 있는, 지식이 풍부한 아시아계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위한 계획을 제안하고 끌어나가도록 전념하였습니다.

- 매달 Rooted의 아시아계 미국인 온라인 지역 그룹과 Rooted 컨퍼런스의 아시아계 미국인 대면 사전회의를 통해 아시아계 복미 교회 지도자들의 네트워크가 성장하였고 연결망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배우도록 해왔습니다.
- 아시아계 복미 강사들과 저자들이 **Rooted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들 고유의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아시아계 복미 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을 문맥화할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 Rooted는 **Sola Network**와 **AALC**와 같은 아시아계 미국 단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계 복미 크리스천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esus' work on the cross saves us to live as a family of saints, and the sum of our individual stories illustrate the beauty and magnitude of Jesus' love for his people. If you are a fellow Asian North American looking for community and resources to proclaim that **gospel of grace** for your unique ministry context, you are welcome here! I hope you will connect with us for a gathering in person or online. Come join the community, friend and co-laborer!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여 그의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예증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특한 사역 환경에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공동체와 자료를 찾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면 Roote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면 혹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저희와 연결되길 바랍니다. 친구와 동역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십시오.

*For more resources about gospel-centered youth ministry from a variety of contexts, check out our **Rooted Youth Ministry Podcast**, hosted by Danny Kwon, and for more opportunities to gather with others serving in an Asian American context, join us at this year's **Asi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hosted by Rooted and a few others.*

다양한 환경에서 복음 중심 청소년 사역에 대한 자료를 원한다면 Danny Kwon이 진행하는 **Rooted Youth Ministry Podcast**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 환경에서 섬기는 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면 올해 Rooted와 다른 기관이 함께 주최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도자 컨퍼런스**로 초대합니다.